

전주여울통신문

사랑과 존경으로 참과 꿈을 가꾸어 가는 여울교육

튼튼한 몸과 고운 마음으로 슬기롭게 배우는 어린이 ◈담당자: 교사 백은희 ☎ 교무실 255-9077

만 12세 여학생 대상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안내

학부모님께

자궁경부암은 대부분 사람유두종 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HPV)의 지속감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암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3,500여 명에서 발병하고 연간 900여 명이 이 암으로 사망하고 있다고합니다.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은 성인보다 청소년기에 접종할 때 면역력이 더 높게 나타난다고합니다. 만 12세의 경우 지원시기를 놓치면 충분한 면역 반응을 얻기 위해 필요한 접종횟수가 2회에서 3회로 늘어나고 접종비용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만 12세 여학생에게 국가에서는고위험 HPV 감염 예방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어 있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뒤편에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에 대한 정보를 함께 발송하오니 올바른 정보 하에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접종확인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급학교 진학 시 질병관리본부 자료가 연동되어 건강기록부에 자동 기록될 예정)

- 지원 대상: 만 12세 여성 청소년(2006.1.1.~ 2007.12.31. 출생자)
 - ※19.12.31.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해야 접종일로부터 24개월 하루전까지 2차 접종 비용지원 가능
 - 지원내용: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및 '1:1 여성건강 상담'서비스 제공(6개월 간격으로 2회 제공)
 - 지원기관: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 ※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cdc.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참여의료기관 및 접종백신 확인 가능
- 예방접종 전후 주의사항 (보호자 분들은 꼭 확인하고 지켜주세요!)
 - 건강상태가 좋은 날 예방접종 하세요.
 - 여러 명이 함께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개별적으로 방문해주세요.
 - 의료기관 방문은 오전이나 낮 시간대에 보호자와 함께 해주세요.
 - 예방접종 전 예진표를 꼼꼼히 작성하고, 예진시 의사에게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세요.
 - 예방접종 후 20~30분 동안 의료기관에 머물면서 혹시 급성이상반응이 생기지 않는 지를 관찰하세요.
 - 예방접종 후에는 접종 부위에 손대지 말고 깨끗이 합니다.
 - 접종부위에 통증, 발진, 전신적으로 발열, 두통, 어지러움 등이 나타날 수 있으나 보통 2-3일내에 소실되나 증상이 심하거나 고열의 경우에는 병원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2019. 7. 4. 전주여울초등학교장

□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바로알기 Q&A

Q1. 왜 12세 여성 청소년에게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권장하는 건가요?

- ☞ 자궁경부암 백신은 성인 연령에서 보다 **어린 청소년에서 예방접종을 할 경우 면역력이 더 높게** 나타나고, **성접촉이** 발생하기 전 2회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자궁경부암 예방에 최적의 효과를 나타냅니다.
- * 자궁경부암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이 주된 원인이며,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3천여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900명 이상이 사망하는 치명적인 암 중의 하나입니다.
- * OECD 34개국 중 29개 국가에서 이미 자궁경부암 백신을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하였습니다.

Q2. 자궁경부암 백신은 안전한가요?

- ☞ 자궁경부암 백신은 전 세계 65개 국가에서 **암 예방을 목적으로 현재까지 2억 건 이상 안전하게 접종**된 백신이며,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이후 약 260만 명(790만 건)이 특별한 이상반응 없이 접종을 잘 마쳤습니다.
- ☞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에서 수집된 안전성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중단할 만큼 안전성 우려는 없으며 여전히 안전하다고 반복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Q3.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후 발생하는 **이상반응은 타 영유아 백신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 자궁경부암 백신의 이상반응으로는 접종부위의 통증*, 부종, 발적, 두드러기 같은 국소반응과 발열, 메스꺼움, 근육통 등 전신반응이 있으며, 이런 증상은 **보통 2~3일 내 특별한 치료 없이 회복**됩니다. 매우 드물게 심한 알레르기(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 자궁경부암 백신은 타백신에 비해 접종부위 통증 빈도가 높은 편
- ☞ 일부 청소년은 접종부위 통증이나 심한 긴장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정신을 잃고 넘어질 수 있지만, 이는 다른 예방접종 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고 충분히 예방 가능합니다. 낙상을 예방하고, 급성 알레르기 반응에 대한 관찰을 위해서 예방접종 후 20~30분간 의료기관에 앉아 있거나 누워있어야 합니다.

Q4. 뉴스를 보면 일본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있었다던데 사실인가요?

- ☞ 일본 후생노동성은 2013년 자국에서 발생한 복합부위통증 등의 이상사례에 대해 접종 대상자의 심리적 불안과 긴장에 의한 것으로 잠정결론을 내렸습니다(2014년 2월, 7월).
- ☞ 일본 이외에 자궁경부암 백신을 도입한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는 현재까지 특별한 안전성 문제없이** 국가예방접종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일본에서도 여전히 무료예방접종 지원을 하고 있음).
 - * 백신으로 인하여 보행장애, 난소부전 같은 증상이 나타났다는 SNS 글은 과학적인 사실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세계보건기구 및 해당 국가들(뉴질랜드, 미국 등)에서는 그 사례들이 예방접종과 관련이 없다고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Q5. 혹시 모를 이상반응 발생에 대비해서 국가가 마련하고 있는 대응책에는 무엇이 있나요?

- 질병관리본부는 이상반응 신고체계를 통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을 감시하고 중증이상반응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심의를 거쳐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상해주는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는 등 예방접종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이 의심되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시고,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cdc.qo.kr)를 통해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